

“영화 확실히 지원… 간섭 절대 없을 것”

문 대통령, 봉준호 감독 비롯
‘기생충’ 제작·출연진과 오찬서
“우리 영화 100년, 오스카에
새 역사… 아주 자랑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미국 아카데미(오스카) 영화제에서 4관왕에 오른 영화 ‘기생충’을 두고 “비영어권 영화라는 장벽을 무너뜨렸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영화 산업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약속한 문 대통령은 “간섭은 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인왕실에서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제작진과 출연진 등 20여명과 오찬 전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영화 ‘기생충’이 세계 최고의 영화제라는 아카데미영화제에서 최고의 영예를 얻고, 그리고 또 그 영예의 주인공이 되신 봉준호 감독님과 송강호 배우님을 비롯한 출연진 여러분들, 또 스텝진 여러분, 제작사 모두의 성취에 정말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영화 100년사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다는 것도 아주 자랑스럽고, 또 오스카의 역사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쓰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이 아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오스카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최고 영화제이지만 우리 봉준호 감독님이 아주 핵심을 찔렀다시피 로컬 영화제라는 비판이 있어왔다”고 언급했다. 봉 감독은 지난해 10월 미국의 한 매체의 인터뷰에서 ‘오스카는 국제 영화제가 아니다. 매우 로컬적이다’라고 말했다. 이후 영화 ‘기생충’이 오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아카데미 영화상 4관왕에 빛나는 ‘기생충’ 제작진 및 출연진 격려 오찬 사전환담에 참석해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배우들과 환담하고 있다.

카 각종 부문 후보에 오르면서 이 인터뷰는 화제가 됐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 ‘기생충’, 우리 영화가 워낙 뺏어나고 봉 감독님의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정말 비영어권 영화라는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최고의 영화, 최고의 감독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며 “특별히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또 “그 자랑스러움이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아주 큰 자부심이 됐고 아주 많은 용기를 줬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문화예술계도 영화가 보여준 것과 같은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제작 현장에서나 배급·상영·유통구조에서도 여전히 불평등한 요소들이 남아있다”며 “표준 근로(표준근로계약)시간제, 주52시간 등이 지켜지도록 봉 감독과 제작사가 솔선수범 준수해 주셨는데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 선한 의지로서가 아니라 그것이 제도화되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일 없는 기간 동안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복지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 영화 유통구조에 있어도 스크린 독과점을 막을 수 있는 스크린 상한제가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영화 산업의 융성을 위해 영화 아카데미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거나 (하는 등)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그러나 간섭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봉 감독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감독 중 1인이었다.

트렌드 변화 대응 교육의 패러다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오늘 전문가 자문위 열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이운애 센터장)는 여성의 잠재된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사업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2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로 급변한 사회 환경은 모든 성인의 지속적인 학습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인구는 (40~64세)로 인구 비율상 39.3(통계청, 201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평생학습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를 낳고, 또 중장년층의 학습욕구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센터는 사회 트렌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지원과 생활문화복지지원 과정 등 수요자 욕구에 따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해 매년 240여 과목의 교육과정에 5,0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교육사업 전문가 자문회의에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최훈 본부장, 노사발전재단 전북센터 김인수 소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중장년층, 장애인 등 교육 소외계층의 교육과정 발굴과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운애 센터장은 “자문위원들의 전문적 의견을 적극 수용해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위한 수요자 중심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발굴·운영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센터는 전북도 출연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의 비전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이용자 중심 설립목적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만족도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문체부, ‘무지개다리 사업’ 전국 26개 지역서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양한 문화주체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을 전국 26개 지역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무지개다리 사업은 지역·세대·성별·인종·종교 등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지닌 지역 사회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2012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문화다양성 정책이다.

지난해 강원도 영월문화재단이 귀농귀촌으로 유입된 이주민들과 원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행사로 개최한 ‘삼달이축제’와 종로문화재단이 개최한 ‘종로 문화다양성 연극제’ 등이 이 사업으로 추진됐다.

올해는 공모로 선정된 지역문화기관 26곳에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지역별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단계별로 상담을 지원하고 올해부터는 3년간 계속 지원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의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고 상호 공존하기 위한 문화다양성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창의성과 포용성을 높이고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곤충, 오래전 지구의 주인’

전북대 자연사박물관 기획전시
139종 315점 서식지별로 분류

전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관장 박진호)은 ‘오래전 지구의 주인, 곤충’ 기획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곤충의 생김새와 생장, 서식지, 살아남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다.

국내 곤충뿐 아니라 해외 곤충 표본도 관찰할 수 있으며, 139종 315점을 서식지별로 분류 전시돼 있다.

멸종위기야생생물 I 급인 상재나비, II 급



인 물방개, 두점박이사슴벌레, 꼬마잠자리, 애기빨소풍구리 등의 표본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천연기념물 퍼즐, 멸종위기종 그리기, 360° 관찰 박스 등 체험코너도 마련돼 있어 방학을 보내는 어린이들에게 생생한 체험학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전시되는 모든 곤충 표본은 전북대 농생물학과(학과장 주호종)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에 축적돼 온 소중한 자연 자원의 가치를 관람객과 공유하고 지역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

박진호 관장은 “곤충에 대한 생생함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다양한 곤충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